



첫째는 오래전부터 우유와 달걀을 잘 먹지 않았다. 우유를 만들기 위해 암소를 강제 임신시키고, 갓 태어난 송아지를 어미소에게서 떼어 내어 송아지가 먹어야 할 우유를 인간에게 판매하는 것, 좁은 닭장에서 24시간 불을 밝혀 암탉에게 달걀을 많이 생산하게 하는 방식이 너무나 비윤리적이어서 먹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세 아이들은 동물과 인간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즉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비건 생활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인간은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에,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고... 인문고전과 체험을 통해 습득한 교육의 효과는 컸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비건 식단으로 전환했고,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비건 식단을 할 수 있도록 비건 요리 체험과 콘테스트도 열었다. 이렇게 아이들은 비건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나는 페미니스트 독서 동아리 '레드스타킹' 멤버이다. 마침 그맘때 읽었던 『육식의 성정치』는 아이들의 생각과 일치되는 점이 많았다. 고기는 황소 같은 힘을 가져다주기에, 힘이 있는 남성,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력을 쥔 남자가 주로 먹었다고 한다. 육식에서 드러난 성차별. 비건은 동물권이나 환경뿐 아니라 페미니즘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비건에 동참하기로 했다. 평소 카니보어와 비건에 관심이 많은 남편도 비건 식단이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에 문제가 없다면서 아이들의 의견에 동의했고, 자녀들의 의견을 늘 지지해주는 시어머니도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양나고 하면서 모든 가족이 비건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흐뭇했다. 앞으로 닥쳐올 험난한 비건 생활은 상상도 못한 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환경을 위한다는데, 동물권을 보호하고, 페미니즘과도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해진다는데.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달랐다. 슬프게도 우리 어른들은 고기 맛을 잊을 수 없었다. 고기를 굽는 냄새, 쫄깃한 고기의 질감, 풍부한 육즙, 향긋한 풍미를 포기할 수 없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식품첨가물에조차 고기와 해산물에 어찌나 꼼꼼하게 들어있는지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우리 어른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누가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했던가. 누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가 자란다고 했던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건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식탁에서는 비건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집에 없을 때는 잡식을 하기로 했다.

